

尹, 오늘 영국 국민 방문...프랑스선 '부산엑스포 총력전'

한영 수교 140주년...국민 방문, 10년 만 한영FTA 개선 논의...신시장·공급망·기술 22일 정상회담...‘한영 어코드’ 채택예정 이후 파리행...부산 엑스포 ‘막판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영국 국민 방문길에 오른다. 영국 방문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막판 외교전을 펴고 26일 귀국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20일 영국 런던을 찾는다. 2023년은 한영 수교 140주년으로, 대통령의 영국 국민 방문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 방문에서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방안을 논의해 브렉시트 이후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영국 시장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

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6위, 유럽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반도체·AI(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영국과 협력 수준을 높여 신시장을 확보하고 공급망·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영 FTA가 발효된 지 몇 년이 됐지만, 국제 경제·안보 지형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며 “이번 방영(영국 방문) 계기에 한영 FTA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신규 협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영국 의회에서 연설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한영관계의 역사를 되짚고

양국 관계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찰스 3세 국왕 주최 환영 오찬과 버킹엄 궁에서 열리는 국민 만찬이 앞뒤로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22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은 디지털·AI(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3박4일간의 영국 국민 방문을 마치고 23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한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일(11월28일)을 목전에 두고 ‘부산 엑스포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박4일 일정으로 파리에 머무르며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과의 오·만찬 행사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갖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82개국의 BIE 회원국 정상을 만나 부산 세계박람회의 비전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



윤 대통령의 마지막 파리 방문에 대해 “지지 미정국과 부동표의 표심을 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일요일인 26일 오전 귀국한다.

김희면기자



민주당 광주시당, 총선공약개발단 본격 활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2024 총선공약개발단이 본격 활동에 나섰다.

19일 광주시당에 따르면 총선공약개발단은 전남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발대식에는 이병훈 시당위원장과 공약개발단, 선출직 공직자와 핵심 당원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당 총선공약개발단은 ▲민생을 살피고 돌보는 복지정책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안전정책 ▲노동·주거·일자리 등 민생 안심정책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완화해 함께 살아가는 정책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희망과 기회정책 등 광주시민과 당원의 삶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저성장, 고물가 속에 시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의 위기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무능·무대책·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광주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 시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위원장은 “파란 난 민생, 복지, 경제 회복을 위해 광주시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과 당원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개발에 올인해 국민 삶을 지키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지렛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민주 “윤, ‘나홀로’ 한중 정상회담 불발...창피하지 않나”

“APEC정상회의 기간, 미중·중일회담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APEC정상회의의 기간 한중정상회담만 열리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을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APEC 정상회의의 기간에 미중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한중 정상회담

은 불발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홀로 한중 정상회담 불발이 창피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의 참석이 확정된 후, 우리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끝내 우리만 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은 뒤늦게 ‘한중회담을 전라적으로 판단했

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의 회담을 미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솔직해져라. ‘안’ 만난 것이 아니라, ‘못’ 만난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생각인가”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경제 외교의 방점을 찍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외교 지평을 넓혔다”며 “낮 뜨거운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부끄러움은 오로지 국민의 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은 개최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우리만 못했는데 무슨 외교 지평이 넓어졌는 말인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미국과 중국, 일본 모두 서로 국익을 챙기는데 여념 없을 때 우리 대통령은 멀뚱거리다 온 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고립의 교로 한중관계는 악화일로로 걸어왔다”며 “심지어 우리 무역의 한 축인 대중국 수출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에 대한 ‘호구 외교’도 모자라, 중국에 대한 ‘국익 파괴외교’를 국민에게서 언제까지 봐야하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면 경색된 한중관계를 풀기 위한 대책부터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